

동아쏘시오홀딩스 '26년 2분기 실적발표 스크립트

'26년 2분기 연결실적

- '26년 2분기 연결 매출은 주요 사업회사인 동아제약(25.7%, yoy)과 용마로지스(19.7%, yoy) 등이 크게 성장하여 전년대비 18.9% 증가한 4,124억원 달성. 분기 매출 4,000억원 돌파는 사상 최초. 영업이익은 매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과 사업회사들의 판관비 감소로 전년대비 38.3% 증가한 390억원 기록.

동아제약

- '26년 2분기 매출은 전 사업부문이 성장, 특히 박카스부문(26.6% yoy)과 일반의약품부문(36.5% yoy)이 크게 성장하여 전년대비 25.7% 증가한 2,282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원가율 증가에도 큰 폭의 매출 상승과 판관비 절감으로 전년대비 26.6% 성장한 302억원 기록. 원가율 상승은 지속되는 중동전쟁으로 원자재비 및 환율이 상승하고, 지난 4월에 도입한 글로벌 일반의약품 브랜드 4종 도입 영향. '26년 동아제약은 얼박사/얼박사제로 판매 호조와 피부외용제의 지속적인 성장, 글로벌 일반의약품 도입 등으로 박카스부문과 일반의약품부문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신제품 발매 및 성장으로 HTC(생활건강)부문도 성장 가능. 연간 매출은 전 사업부문이 성장하여 전년대비 10% 이상 성장 예상.
-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26년 2분기, 박카스부문은 선거철 특수(6.3 지방선거)와 신제품 얼박사 및 얼박사제로의 판매 호조로 26.6% 성장. 3월말 얼박사제로 출시. '26년 박카스부문은 지난해 가격인상에 따른 수량 감소 회복과 얼박사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성장, 얼박사제로 출시 등으로 10% 이상 성장 예상.
- '26년 2분기, 일반의약품부문은 주요 브랜드 라인업 확대, 피부외용제의 꾸준한 성장과 지난 4월 도입한 오펔라 브랜드 4종 신규 매출 영향으로 36.5% 성장. 피부외용제 주요 브랜드 노스카나 63억원(-1.3% yoy, '25년 240억원), 애크논/린 79억원(157.5% yoy, '25년 255억원). 멜라토닝/노사 86억원(10.0% yoy, '25년 185억원). 멜라토닝은 최근(4월) 전지현 모델을 발탁하고 신규 광고 캠페인 진행. 색소침착치료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입지 강화 기대. '26년 일반의약품부문은 지속적인 피부외용제 성장과 신제품 발매, 그리고 오펔라헬스케어의 글로벌 브랜드 4종 도입으로 두 자릿수 성장 예상.
- '26년 2분기, HTC부문은 건강기능식품시장 침체에도 신제품 발매/성장 등으로 4.4% 성장.

오쏘몰ODP(분말) 신제품 5월 출시, 가그린 브랜드 라인인 신제품 듀오버스터와 가그린스 프레의 꾸준한 성장세, 마시는 콜라겐 아일로 성장은 긍정적. '26년은 오쏘몰 브랜드는 SKU 다변화, 라인업 확장, 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재성장하고 신제품 출시 및 성장으로 5% 내외 성장 계획.

- 더마사업부문은 신규 브랜드 런칭 및 유통 채널 확장 등 국내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잡으며 38.5% 성장한 84억원 달성. '25년 10월 다이소 출시, 지난 1월 국군복지단 입점 등 지속적으로 유통 채널 확장. '26년 3월에는 고기능성 더마 브랜드 '동아제약프로'를 올리브영에 런칭. 해외는 중국, 일본, 미국 중심으로 인플루언서(KOL) 및 온라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 추진 중. '26년 더마사업 국내는 신제품 기반 및 유통 채널 확대로 지속 성장하고 해외는 새로운 전략 및 마케팅으로 성장 목표.

비티젠

- '26년 2분기 매출은 주요 고객사 발주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크게 감소한 137억원 기록. 이번 매출 감소는 매출 시점 차이에 대한 감소로 연간 계획대로 진행 중. 영업이익은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증가로 90.0% 감소한 4억원 기록. 상반기 수주계약은 총 7건으로 지속적인 신규 수주 계약을 통해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중. 지난 3/16일, 기 공시된 알테오젠항 수주계약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7/10일 22억원 증가된 내용으로 정정 공시함.
- 비티젠은 지난 2/26일 글로벌 CMO 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생산시설 확장 결정(1,090억원 투자). 바이오리액터 5,000L(2500L x 2), 하베스트라인 1기, 아이솔레이터 1기 등 추가 증설을 통해 연간 DS 생산배치능력은 44%, DP 생산배치능력 170% 증가. 최근 시장 환경은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 및 바이오시밀러 승인 간소화 추진 등으로 글로벌 CMO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춘 비티젠에게 우호적 환경 조성. 특히 단일사이트에서 DS와 DP(PFS)를 GMP 역량으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로써, 그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고객사 유치 가능.
- '26년은 중장기 성장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로, 시설투자와 글로벌트랙레코드 확장, 이익향상 등에 집중할 예정으로 연간 10% 내외 성장 예상.

용마로지스

- '26년 2분기 매출은 K 열풍에 힘입어 뷰티/푸드 등 기존 화주 물량 증가와 신규 화주 유치

로 19.7% 증가한 1,205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대외 이슈로 유류비/물류 부자재비가 높아지는 원가율 상승 압력이 있음에도 매출 상승과 판관비 감소 영향으로 41.6% 증가한 69억원 기록. 판관비 감소는 일부 비용이 이월되는 등 일회성 요인 반영. 용마로지스는 정온 인프라 고도화로 주력사업 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신산업군 확대를 통해 지속 성장. 신허브센터는 지난 5월 착공식을 갖고 '28년 가동을 위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완공을 통해 지속성장 로드맵 구축. '26년 매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주요경영사항(소규모합병)

-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최근 7월 23일, 주요 자회사 동아제약 흡수합병 결정. 동아제약은 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로 신주 발행 없는, 무증자 소규모 합병 방식이고, 합병기일은 10월 1일. 합병을 통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순수지주회사에서 사업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여 1) 경영 효율성 증대, 2) 현금창출능력 내재화 및 재무구조 개선, 3) 글로벌 사업 가속화 및 신사업 추진, 4) 시장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기업가치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